

LG, 국내 최초 사내대학원 개원... 구광모號 인재경영 결실

마곡 K스퀘어에 캠퍼스 공간 조성
AI 분야 등 첨단산업 전문가 양성
구 대표, 입학생에 노트북·편지 전달



구광모 LG 대표.

구광모 LG 대표의 인재 경영이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과 함께 구체적인 결실을 맺었다.

LG는 4일 서울 마곡 K스퀘어에서 'LG AI대학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LG AI대학원은 기업 부설 교육기관 중 국내 최초로 교육부 공식 인가를 받아 석·박사 학위 취득이 가능한 사내 대학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날 개원식에서 구광모 대표는 1기 입학생들에게 LG의 초거대 AI 모델인 '엑사원'이 탑재된 최고 사양의 신형 LG그램 노트북과 축하 편지를 전달하며 애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구 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기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람들의 미소'를 설계하는 따뜻한 도구여야 한다"며 "AI 전문가들이 기술의 본질을 사람에 두고 인간의 가능성을 개척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LG AI대학원 1기 신입생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선발 전형(코딩 테스트, AI 모델링 평가, 심층 면접)을 거쳐 선정됐다. 석사 과정 11명과 박사 과정 6명 등 총 17명이 합격했으며, 계열사별로는 LG전자(8명), LG에너지솔루션(3명), LG이노텍·디스플레이·화학(각 2명) 소속이다.

LG AI대학원은 이론을 넘어 산업 현장의 난제를 해결하는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수진은 LG AI연구원 소속 겸임교원 24명과 전임교원 1명으로 구성됐으며, 학생들은 초거대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부터 언어·비전·소재·바이오 등 전 주기에 걸친 실전 연구를



이홍락 LG AI대학원장(두번째 줄 왼쪽에서 네번째)과 LG AI대학원 1기 입학생들이 4일 개원식이 열린 LG AI대학원 마곡 캠퍼스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G

수행한다.

교육 과정은 석사 1년, 박사 3년 이상으로 구성되며 학비는 전액 지원된다. 특히 박사 과정은 SCI(E)급 논문 게재가 졸업 필수 요건으로 지정되는 등 전문성을 엄격히 관리하며, 졸업 시에는 정식 '인공지능학' 학위를 받게 된다.

교육 환경도 최고 수준으로 갖췄다. 마곡 K스퀘어 8층에 위치한 전용 캠퍼스는 강의와 연구, 세미나가 동시에 가능한 융합 학습 공간으로 꾸며졌다. 또

서울대, KAIST, DGIST, UNIST 등 주요 과학기술원과 협력해 특강 및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산학 기술 혁신의 허브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구 대표는 연구 과정에서 마주할 실패에 대해 "실패는 혁신으로 향하는 가장 정직한 과정"이라며 "실패에 굴하지 않고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이곳에서 만들어질 기술이 세상과 만날 수 있도록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학원 개원은 LG의 '사람 중심' 경영 철학의 연장선에 있다. LG는 기술력의 핵심 동력을 자본이나 설비가 아닌 '인재'로 정의하고, 청소년부터 전문가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AI 교육 체계'를 완성했다.

LG는 ▲청소년 대상 'LG 디스커버리랩' ▲청년 대상 'LG 에이머스' ▲임직원 대상 'LG AI 아카데미'에 이어 이번 ▲석·박사 과정 'LG AI대학원'까지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AI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 생태계를 선도하는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홍락 LG AI대학원장은 "기업이 직접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LG AI대학원의 출범은 대한민국 AI 인재 육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학생들이 학문적 연구를 통한 기여를 넘어, 산업 현장의 실제 난제들을 직접 해결하며 미래의 혁신을 이끄는 AI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metroseoul.co.kr



배터리업계, 차량용 LFP 기술 주도권 '흔들'

韓, 차량용 제품 로드맵 불확실
中, 전기차 LFP 기술 고도화

국내 배터리 업계가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생산 확대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중국 BYD가 전기차용 차세대 LFP 기술 고도화에 나서면서 국내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둘러싼 고민이 커지고 있다.

4월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ESS용 LFP 생산 확대에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자동차용 LFP 배터리를 전면에 내세운 대규모 양산 계획이나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과거 완성차용 LFP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최근에는 관련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들의 LFP 전략도 ESS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충북 오창 공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 생산라인 구축

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 양산에 들어가는 등 북미 지역 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 일부를 ESS용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삼성SDI도 LFP 전략을 ESS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북미 지역 배터리 생산라인 일부를 ESS용 LFP 생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SK은 역시 ESS용 LFP 배터리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북미 에너지 기업과 ESS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일부 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을 ESS용 LFP 생산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ESS 중심으로 LFP 전략을 전개하는 사이 중국 업체들은 전기차용 LFP 기술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BYD는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 공개를 앞두고 LFP 기술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리튬인산철 기반

배터리 기술 기초를 유지하면서 중국인 증(CLTC) 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 1000km 수준을 목표로 성능 향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롭게 선보일 배터리 제품은 약 3000회 수준의 충전 사이클 성능이 거론되는 등 수명 특성 강화도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LFP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보급형 전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다만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현재 고니켈 NCM과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가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재 수요가 형성된 보급형 전기차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차 캐즘 국면에서 가성비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LFP 채택이 확대되고 있다"며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재 시장 대응 전략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화오션, CPSP 최종 제안서 제출

잠수함 인도 일정, 투자 계획 등 담아

한화오션이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에서 오는 2032년 첫 잠수함을 인도하고 2035년까지 총 4척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캐나다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캐나다 일간지 캐나다인프레스는 3일(현지시간) 여성철 한화오션 사장이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CPSP 최종 제안서를 캐나다 측에 제출

했다고 보도했다.

최종 후보로 선정된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는 지난 2일 캐나다 정부에 잠수함 인도 일정과 수주 연계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최종 제안서를 제출했다.

보도에 따르면 여 사장은 이번 계약이 한·캐나다 간 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철강, 인공지능(AI), 우주 등 다양한 분야 투자를 포함하고 올해부터 오는 2044년까지 연평균 약 2만

5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여 사장은 "한화의 제안은 단순한 플랫폼 제안이 아니라 명확한 인도 계획과 세대에 걸친 산업 파트너십을 결합한 것"이라며 "캐나다 국방 산업 전략과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또 캐나다의 지상 방위 프로그램, 전자 분야, AI 기술, 북극 관련 역량 등 다른 사업 참여 가능성도 언급했다.

여 사장은 "역량 있는 캐나다 기업들과 강력한 관계를 구축해왔다"며 "계약 결과와 관계없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AW 2026

현대차·기아, '모베드 얼라이언스' 출범

고객 맞춤형 로봇틱스 솔루션 제공

현대차·기아가 고객 맞춤형 로봇틱스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모베드를 중심으로 다자간 협력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현대차·기아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6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AW2026)'에 참가해 '모베드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하고, 모베드의 국내 판매를 본격 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단순 하드웨어 도입을 넘어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솔루션을 원하는 최근 로봇 시장의 수요에 발맞춰 기획됐다. 얼라이언스의 핵심인 모베드는 혁신적인 바퀴 구동 시스템을 갖춘 현대차·기아의 신개념 소형 모바일 플랫폼이다.

모베드는 4개의 독립구동 DnL(Drive-and-Lift)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편심 구조를 갖춰, 지면 변



AW2026 전시장 내 현대차·기아 로봇틱스랩 부스에서 로봇틱스랩 관계자가 방송 촬영용 탐모돌 결합 콘셉트 모델 '모베드 브로드캐스팅'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화 대응 능력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기아 로봇틱스랩은 모베드 플랫폼 개발 및 핵심 기술 기반을 제공하고 현대트랜시스, SL을 비롯한 10개 부품사는 센서·전장·배터리 등 주요 핵심 부품의 생산 및 공급을 담당한다.

/양성운 기자

포스코DX, 자체 개발 AI 에이전트 선택

그룹 AX·DX 추진 사례 공유

포스코DX는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Automation World 2026)'에 참가해 그룹의 AX(인공지능 전환)·DX(디지털 전환) 추진 사례를 공유한다고 4일 밝혔다.

포스코DX는 이번 전시에서 자체 개발한 AI 에이전트를 선보이고, 인공지능과 로봇을 결합한 '피지컬 A

I' 기술도 소개할 계획이다.

포스코DX 전시관은 'Your AX Journey with POSCO DX, the AI Native Company'를 주제로 운영된다. 전시관은 ▲회사의 비전과 안전 플랫폼을 소개하는 '포스코DX 개요' ▲AI 기반 업무 혁신을 담은 'AI 워크포스' ▲산업현장의 AX·DX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지능형 공장' 등 3개 테마존으로 구성된다.

/양성운 기자